

본래적 가치에 대한 치솜 정의의 한 옹호

김 영 정
(서울대 철학과 교수)

「본래적 가치」¹⁾라는 논문에서 로데릭 치솜 교수는 본래적 가치와 외래적 가치의 구분을 옹호하기 위해 본래적 가치의 본성을 유적(generic) 가치 개념에 의해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다시 말해, 유적 가치 개념을 일단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위에서 본래적 가치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되지 않은 유적 가치 개념을 가지고 본래적 가치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치솜 교수는 “어떤 것의 본래적 가치란 그것이 고립되어도 여전히 가지게 될 가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무어의 견해에서 비롯된 고립화의 방법을 채용한다. 그는 “본래적으로 좋은 사태(state of affairs)는 그것을 포함하지도 그것에 포함되지도 않는 다른 좋은 사태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사태”²⁾라는 직관을 구체화해주는 일련의 정교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이 같은 견해를 옹호한다.

그러나 에바 보단스키 교수와 얼 코니 교수는 「본래적 가치의 고립화」³⁾라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치솜의 고립화 방법이 몇 가지 치명적 반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고립화 접근과 같은 어떠한 것도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반례가 환기시켜 주는) 그 고립화 접근법의 문제점들이 본래적 더 좋음을 유적 더 좋음과 어떤

1) Roderick Chisholm, “Intrinsic Value”, A. I. Goldman and J. Kim (eds.), *Values and Morals* (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 1978), pp.121-130.

2) *Ibid.*, p.122.

3) Eva Bodanszky and Earl Conee, “Isolating Intrinsic Value”, *Analysis*, January 1981, pp.51-53.

종류의 고립화를 통해 규정하려는 시도가 부딪치는 난점들의 전형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은 각 사태가 그것의 유적 가치로서 정확히 그것의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단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⁴⁾

이들에 동조해, 윌리엄 톨허스트 교수도 「본래적 가치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자신의 논문의 주석에서 치숨의 고립화 접근이 이들에 의해 제기된 반례들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치숨의 「본래적 가치」]의 요점은 유적 선호성(preferability)을 통해 본래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설명은 보단스키와 코니의 「본래적 가치의 고립화」라는 글을 통해 결정적으로 반박되었다.”⁵⁾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들에 반대하여 보단스키와 코니가 제시한 반례들이 치숨 정의의 소소한 수정을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미묘하지만 심각한 혼동에 기인한 일종의 사이비 반례임을 보이하고자 한다. 고립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떻게 치숨으로 하여금 유적 가치 개념(특히 유적 더 좋음 개념)을 통해 본래적 가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게 해 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자.

1. 치숨의 고립화 방법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치숨은 본래적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 좋음’, ‘나쁨’, ‘중립적임’, ‘더 좋음’ 등의 가치 표현이 가지는 우적 의미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그는 사태(또는 명제)⁶⁾를 가치의 담지자라고 가정하며, 가능 세계도 사태이고 따라

4) *Ibid.*, p.53.

5) William Tolhurst, “On the Nature of Intrinsic Value”, *Philosophical Studies*, Vol. 43, 1983, pp.383-395. 인용된 구절은 394쪽에 나옴.

6) 치숨에 있어서는 ‘state of affairs’의 번역어로 ‘사태’ 보다는 ‘사상(事象)’이 더 나을 듯 싶다. 그는 state of affairs를 추상체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서 마찬가지로 가치의 담지자라고 가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치숨의 고립화 방법은 문제되는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사태가 고립된 채로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며 동시에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는 그런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치숨은 그와 같은 가능 세계의 존재 조건들을 몇 가지 정의들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고립화 방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고립화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문제되는 사태가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를 결정하도록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사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구성된 가능 세계로부터 다른 결정자, 곧 도구적 가치의 담지자를 제거하는 일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두 단계를 통해, 치숨은 문제되는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특정 사태가 고립된 채로,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며 동시에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는 그런 가능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특히 이들 두 단계의 작업에 주목하여 치숨이 어떤 식으로 그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문제되는 사태가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의 결정자인 그런 가능 세계를 구성하기 위하여(고립화 방법의 첫 번째 단계) 치숨은 '다른 사태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의 1. p 는 q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 = Df. q 는 p 를 함의한다.

그리고 p 를 함의하는 q 의 모든 부분은 p 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⁷⁾

그냥 일반 관례에 따라 '사태'로 번역했다.

그리고 치숨에 있어서 'obtain'은 추상적 상태가 구체화됨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존재한다'고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는 편의상 그냥 '존재한다'고 번역하였고, 문맥에 따라 '발생한다', '성립한다'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7) 치숨은 '함의(entailment)'의 지향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 가 q 를 함의한다 = Df. p 는 필연적으로 (i) 만일 그것이 발생하면, q 가 발

이 정의에서 q 는 치숨이 구성하고자 하는 가능 세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p 는 문제의 본래적 가치를 담지하는 사태를 나타낸다.⁸⁾ 따라서 피정의항인 ' p 는 q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는 말은 p 가 전체 유적 가치의 결정자가 되는 그런 가능 세계가 바로 q 라는 뜻이 된다. 뿐만 아니라 p 가 만일 가능 세계 q 의 전체 유적 가치의 결정자라면, p, q 그리고 p 와 q 사이의 어떠한 사태도 동일한 유적 가치를 지닐 것은 분명하므로, 정의항 역시 그 같은 설명에 부합할 것이다.

치숨이 들고 있는 아래의 예를 통해 문제되는 사태(그의 예에서는 존스의 쾌락을 느낌)가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를 결정하도록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데에 이런 정의를 도입하는 치숨의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p 가 q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 예를 보이기 위해 간단히 쾌락주의가 맞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존스가 쾌락을 느끼는 사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무어의 제안을 따라 이런 사태를 '고립시켜' 생각해 보자.

우리는 가능 세계 자체도 하나의 사태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존스가 쾌락을 느끼는 사태를 '고립시켜' 생각하는 적절한 한 가지 방법은 존스가 쾌락을 느끼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떠한 쾌락이나 불쾌도 없는 그런 가능 세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럴 경우, 쾌락주의가 옳다면 존스의 쾌락 느낌은 그 가능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능 세계에서 존스의 쾌락 느낌을 함의하는 보다 규모가 큰 사태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능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쾌락주의가 참이라면, 우리는 그런 어떠한 가능 세계도 좋다고 말할 수

생하고 (ii)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구나 q 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사태 p 는 사태 q 의 '부분'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q 가 p 를 함의한다.

- 8) 물론 p 가 문제의 사태를 부분으로 가지는 보다 큰 사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보다 큰 사태는 분명히 정의 1의 조건을 만족한다. 설명을 간략히 하기 위해 필자는 이러한 종류의 사태들을 무시하였다. 그러한 무시가 고립화 방법의 주요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⁹⁾

위의 예에서는 존스가 쾌락을 느끼는 사태만이 상상된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자라는 점이 분명하다.¹⁰⁾ 그러나 본래적 가치뿐만 아니라 외래적 가치까지 성립하는 보다 복잡한 가능 세계에서는 정의 1을 만족시키는 다른 결정자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적 가치 개념에 의거하여 우리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낳는 수단도 경우에 따라 결과와 동일한 유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솜의 예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환자의 쾌유가 유적 좋음이라면 그런 결과를 불러오는 의학적 치료 역시 유적 좋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 두 사태만이 오로지 그 세계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의 담지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모두 유적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면, 환자의 쾌유뿐 아니라 치료 역시도 정의 1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 둘이 함께 성립하는 세계에서, 둘은 모두 그 가능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둘 모두는 그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결정자일 것이다. 이런 도구적 가치 담지자 같은 방해적 결정자를 가능 세계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고립화 방법의 두 번째 단계) 치솜은 본래적 가치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본래적 가치 상태란 정의 1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도 부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태를 말한다. 'p가 본래적 가치 상태이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R. Chisholm, "Intrinsic Value", p.123.

10) 물론 이 표현은 엄밀하게 말해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존스의-쾌락을-느낌을 함의하는 모든 보다 큰 사태 또한 파생적 의미에서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의 결정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스의-쾌락을-느낌이 이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의 유일한 결정자라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다 큰 종류의 사태는 그것의 부분으로서 존스의-쾌락을-느낌이 존재함의 덕택으로 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적 종류의 결정자들은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 2. p는 본래적 가치 상태이다 = Df. 다음과 같은 가능 세계 W가 존재한다: p는 W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 그리고 만일 p가 중립적이 아니라면, W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어떠한 것도 p에 의해 함의되거나 p를 함의하여야 한다.

이런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도구적 가치 담지자 같은 방해적 결정자를 그 세계로부터 제거할 수 있을까? 치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선분석적(preanalytic)인 자료이다: 외래적으로 좋은 사태는 그 사태를 포함하거나 그것에 의해 포함되는 사태가 아닌 별도의 좋은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좋을 수 없는 사태인 반면; 본래적으로 좋은 사태는 그것의 좋음을 위해 별도의 좋은 사태가 요구되지 않는 사태이다. 다시 한번 치숨의 예를 이용한다면, 치료는 세상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도구적 가치를 갖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좋은 결과를 동반하여야만 하는 사태이다. 다시 말해 그 세계는 치료 이외에도,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사태 — 이 경우에는 환자의 쾌유 — 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여야 한다.¹¹⁾

의학적 치료가 존재하고 그런 치료가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세계에서는 환자의 쾌유와 같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함께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는 정의 2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비록 치료를 함의하는 모든 사태들이 이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환자의 쾌유라는 문제의 사태를 함의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의해 함의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쾌유가 가능 세계에서 고립되려면, 그 가능 세계는 의학적 치료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의학적 치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외래적 가치의 담지자가 아니어서(다시 말해,

11) 치숨은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포함하다'는 어구와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다'는 어구를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뿐만 아니라 외래적 가치의 담지자도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할 수 있음에 반해,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만이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포함할 수 있다. 치숨의 논문 "Intrinsic Value"의 주석 4 참조.

의학적 치료는 환자의 쾌유를 실제로 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의 결정자가 아닌 중립적인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일 뿐이어야 한다. 외래적 가치에서 유래하는 결정자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가능 세계에서 환자의 쾌유는 정의 2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런 세계에서는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할 수 있는 사태가 환자의 쾌유를 함의하거나 그것에 의해 함의되는 사태들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립화 방법의 두 번째 단계는 도구적 가치 담지자와 같은 결정자를 가능 세계로부터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두 번째 단계를 거쳐 도구적 가치의 담지자는 그것 자체가 가능 세계에서 제거되거나, 아니면 도구적 가치 담지자로서의 역할이 박탈당함으로써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결정자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 된다.

치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래적 가치 상태는 ‘고립된 채로’ 좋거나 나쁠 수 있는 사태이다. 우리의 정의는 본래적 가치 상태가 한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¹²⁾ 좀더 구체적으로, 본래적 가치 상태란 한 가능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포함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태이다. 이는 곧, 본래적 가치 상태가 한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사태라는 말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주요한 두 단계를 거쳐 치솜은 문제의 사태가 고립된 채로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며 동시에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는 그런 가능 세계를 구성한다.

이 설명에 의해 선접으로 연결된 사태 같은 많은 사태들이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존스가 쾌감을 느끼거나 스미드가 불쾌감을 느끼는 사태’는 어떠한 가능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도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선접 사태가 발생하는 가능 세계는 이 선접지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의 좋음과 나쁨 역시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³⁾

12) R. Chisholm, *op. cit.*, p.124.

치숨은 자신의 고립화 방법을 완수하기 위해, 이상의 두 단계 외에도 필자에게는 비본질적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단계를 추가한다. 이 세 번째 단계를 통해 그는 본래적 가치 상태를 가운데서 비복합적 사태만을 골라내어, 이를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라고 부른다. 'p가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라는 말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3. p는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다 = Df. p가 본래적 가치 상태이고, $\neg p$ 도 본래적 가치 상태이다.

모든 연접의 부정은 선접이고 선접은 본래적 가치 상태일 수 없으므로, 이 정의는 모든 연접 상태로 하여금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든다. 결국 본래적 가치 상태와 본래적 가치 담지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어떠한 연접 사태도 포함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정의의 배경에 놓인 통찰은 비복합적 사태만이 비파생적 의미에서의 본래적 가치 담지자일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¹⁴⁾

결과적으로 본래적 가치 담지자는 한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비복합적 사태이다. 다른 말로 해서, 본래적 가치 담지자는 한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비복합적 사태이다. 이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 고립화 방법을 통해, 치숨은 문제되는 비복합적 사태가 고립된 채로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는 그런 가능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고립화 방법을 통해 치숨이 구성하려는 그와 같은 가능 세계를 편의상 '고립

13) *Ibid.*, pp.124-125.

14) 그렇지만 필자에게는 연접적 사태들도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들로 느슨하게 볼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란 어구의 이러한 느슨한 사용은 치숨이 본래적 가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세 번째 단계는 필자에게는 비본질적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어구의 엄밀한 사용을 수용하든 느슨한 사용을 수용하든 간에 이 점은 본래적 가치의 정의에 대한 치숨의 고립화 접근의 주요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 가능 세계 (isolating possible world)' 라고 부르자. 이는 그 가능 세계가 문제되는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로 하여금 고립된 채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고립화 방법이 결국 앞서의 정의 1, 2, 3을 통해 존재 조건들을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고립화 가능 세계란 앞서의 정의 1, 2, 3이 부과한 조건들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고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래적 가치 개념들에 대한 치솜의 정의

고립화 방법을 통해 고립화 가능 세계를 구성한 토대 위에서 치솜은 유적 더 좋음의 개념을 이용하여 'p가 q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다'는 말을 정의한다. 본래적 선호성의 개념 — 한 상태가 다른 상태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다는 개념 —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4. p는 q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다 = Df. p와 q는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들이다. 그리고 p가 그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그러한 임의의 세계 W1은 q가 그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그러한 임의의 세계 W2보다 (유적으로) 더 좋다.

개략적으로 말해, 이 정의는 두 본래적 가치 담지자들 사이의 본래적 더 좋음 관계가, 가능 세계들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인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들을 각각 함의하는, 두 고립화 가능 세계들 사이의 유적 더 좋음의 관계와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정의의 배경에 놓인 통찰은 다음과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들은 고립화 가능 세계들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들만이 고립화 가능 세계들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고립화 가능 세계를 상상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 두 본래적 가치 담지자들 사이의 본래적 가치 비교는 두 고립화 가능 세계들

사이의 유적 가치 비교가 되어 버린다.

이상과 같은 본래적 선호성의 개념에 호소하여 치숨은 본래적 균등성(indifference), 본래적 중립성(neutrality), 본래적 좋음, 본래적 나쁨 등에 대한 자신의 정의들을 마무리짓는다. 'p가 q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다'는 말을 줄여서 'pPq'라고 할 때, 본래적 가치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는 q와 동일한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pSq) = Df. p와 q는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다. 그리고 $\neg(pPq)$ 이고 $\neg(qPp)$ 이다.

p는 본래적으로 균등적이다(I_p) = Df. $pS \neg p$

p는 본래적으로 중립적이다(N_p) = Df. $(\exists q)(I_q \& pSq)$

p는 본래적으로 좋다(G_p) = Df. $(\exists q)(I_q \& pPq)$

p는 본래적으로 나쁘다(B_p) = Df. $(\exists q)(I_q \& qPp)$

이상의 정의들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들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적 더 좋음의 개념을 사용하여 본래적 가치 개념의 정의가 어떻게 고립화 방법의 도움을 받아 얻어지는지 그 전반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치숨은 본래적 더 좋음(선호성)의 개념을 통해 본래적 가치 개념들의 정의를 성취하며, 이 본래적 더 좋음의 개념은 '고립화 가능 세계'의 개념과 '유적 더 좋음(선호성)'의 개념에 호소해 얻어진 것이다. 그리고 전자(고립화 가능 세계)는 고립화 방법의 산물이고 후자(유적 선호성)는 단순히 가정되었다. 이제 보단스키와 코니가 「본래적 가치의 고립화」에서 이에 대한 반례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3. 본래적 가치의 논리적 동반물들

보단스키와 코니는 치숨의 고립화 방법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정의 4의 정교한 개념 장치들조차

도 본래적 좋음을 고립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들은 설명을 망쳐놓는 논리적, 인과적 동반물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들의 이 같은 공격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재진술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고립화 방법을 통해 소위 고립화 가능 세계라는 것이 확보된다 해도, 그 세계에는 문제의 사태인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라고 불리는 사태를 망쳐놓은 다른 방해적인 논리적, 인과적 동반물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논리적 동반물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매우 명백하여 쉽게 이해된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정의 4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들만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본래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치솜이 분석을 전개하면서 거론하는 본래적 좋음의 대부분의 예들은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다음을 보라.

(a) 브라운이 두 단위의 쾌락을 경험함

(a)가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기 위해서는 먼저 본래적 가치 상태여야만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만일 정의 4가 잘 작동한다면, (a)가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가능 세계는 동시에 브라운의 쾌락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가치에 기여하는 그런 가능 세계여야 한다. 그러나 그런 가능 세계가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a)와 독립적인 다음과 같은 다수의 상태들이 존재한다.

(b) 누군가 모자를 쓴 채로 두 단위의 쾌락을 경험함

또는

(b') 누군가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두 단위의 쾌락을 경험함

따라서 이런 세계 각각은 그것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면서도 (a)에 의해 함의되거나 그것을 함의하지 않는 부분—즉, 모든

15) E. Bodanszky and E. Conee, *op. cit.*, p.52.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정의들의 번호를 달리 부여했기 때문에 '정의 1'을 '정의 4'로 대치하였다.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면서도 (a)와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b)나 (b')-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계에서 (a)는 중립적이 아니므로, 정의 2에 의거할 때 그것은 본래적 가치 상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의 3은 (a)가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가 아니고, 따라서 정의 4에 의해 그것이 다른 것 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은 어떤 것으로 취급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¹⁶⁾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들의 논변은 이렇다: 치솜은 (a)를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로 간주하지만, 사실 (a)는 치솜의 정의 2와 3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a)는 그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면서도 (a)에 의해 함의되거나 그것을 함의하지 않는 (b) 또는 (b')라는 논리적 동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변은 분명히 매우 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솜은 자신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고립화 접근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립화 가능 세계에 (b)나 (b') 같은 논리적 동반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a)로 하여금 그 고립화 가능 세계의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이지 못하게끔 만드는지를 생각해보자.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a)를 함의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태들이 (a)가 유일한 결정자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a)의 논리적 동반물들 역시도 (a)가 유일한 결정자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a)를 함의하는 광범위한 사태들과 마찬가지로 (a)의 논리적 동반물들도 단지 파생적인 의미에서만 전체 유적 가치에 대한 결정자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a)가 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덕분이다. 즉 그것들은 본래적 가치 담지자에 기생적이다.

이런 고려가 합당하다면, 치솜의 고립화 접근을 논리적 반례들로부터 살려내는 길은 (b)나 (b') 같은 논리적 동반물들을 본래적 가치 담지자의 파생적 결정자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의 2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 2의 두 번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16) *Ibid.*, 필자는 여기서도 정의들의 번호를 바꾸었다.

만일 p 가 중립적이 아니라면, 세계 W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어떠한 것도 (i) p 를 함의하거나 아니면 (ii) p 에 의해 함의되거나 아니면 (iii) p 에 의해 함의되는 것을 함의한다.

(b)는 ‘누군가 두 단위의 쾌락을 경험함’을 함의하고 이는 다시 (a)에 의해 함의되기 때문에, 위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a)는 정의 2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고, 따라서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수정안이 치솟의 고립화 전략을 논리적 반례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을지라도, 수정안 자체에 잉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조건 (i)과 (ii)는 (iii)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잉여적이다. 즉 p 는 항상 p 를 함의하기 때문에, 만약 q 가 p 를 함의한다면, q 는 언제나 p 가 함의하는 바를 함의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q 는 항상 q 를 함의하기 때문에, q 가 p 에 의해 함의된다면 q 는 언제나 p 가 함의하는 바를 함의한다. 그러므로 앞서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다.

만일 p 가 중립적이 아니라면, 세계 W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어떠한 것도 모두 p 에 의해 함의되는 것을 함의한다.

앞서 예에서 ‘누군가 두 단위의 쾌락을 경험함’이라는 상태는 q 에 해당한다. q 가 (a)와 (b)에 의해 함의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수정된 정의 2는 그와 같은 논리적 반례들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의 2’. p 는 본래적 가치 상태이다 = Df. 다음과 같은 가능 세계 W 가 존재한다: p 는 W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 그리고 만일 p 가 중립적이 아니라면, p 에 의해 함의될 뿐 아니라 W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것에 의해 함의되는 사태 q 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의 2의 두 번째 조건은 외래적 가치 담지자 같은 전체

유적 가치의 방해적 결정자를 가능 세계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정의 2의 수정안인 정의 2'가 그런 최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치솜의 예를 한번 더 사용하자면, 의학적 치료가 존재하고 그것이 도구적 가치를 담지하는 세계에는 반드시 환자의 쾌유 같은 결과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이 경우, 의학적 치료를 함의하는 모든 사태가 이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의학적 치료를 함의하는 사태와 환자의 쾌유 모두에 의해 동시에 함의되는 사태가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 2'를 (b)나 (b') 같은 논리적 반례를 다루기에 적합하면서도 안전한 정의 2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본래적 가치의 인과적 동반물들

이제 인과적 종류의 반례로 주의를 돌려보자. 논리적 반례와 달리 인과적 반례는 다소 복잡하다. 인과적 반례는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본래적으로 좋은 상태가 그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가능 세계를 가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보단스키와 코니는 '브라운이 두 단위의 쾌락을 경험함'이라는 사태 (a)의 예를 가지고 그런 종류의 가능 세계를 제시한다.

세계 W_a 가 있고, 거기에서는 (a)가 아래 (c)를 야기한다.

(c) 브라운이 두 단위의 불쾌를 경험함

그리고 (a)와 (c) 두 경험만이 오로지 그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가치에 기여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세계 W_a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 (a)는 본래적으로 나쁜 (c)를 야기하기 때문에 세계 W_a 에서 중립적인 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a)를 함의하는 세계 W_a 의 또 다른 부분들(W_a 자체를 포함하여)은 W_a 의 다른 진리들과 (a)의 연결이다. 이 부분이 자신의 연결지의 하나로 (c)를 포함할 경우, 그것이 본래적으로나 유적으로 중립적임은 명

백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c)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것은 유적으로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이들 연접의 유적 가치에 대한 (a)의 기여를 결정하는 것이 W_a 에서 (a)가 가지는 유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a)를 함의하는 세계 W_a 의 부분들은 모두 유적으로 중립적이다. 세계 W_a 는 (a)가 그 세계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는 세계이므로, 정의 4에 의할 때 (a)는 본래적으로 중립적인 사태들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지 않다.¹⁷⁾

논점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논변을 정리하여 보자.

(1) (a)가 (c)를 야기하고, (a)와 (c)만이 오로지 그 세계의 가치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두 사태인 그런 고립화 가능 세계 W_a 가 존재한다.[가정]

(2) (a)는 세계 W_a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한다.[(1)로부터]

(3) (a)는 본래적 가치의 담지자이다.[(2)와 정의 2, 3으로부터]

(4) 세계 W_a 는 유적으로 중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1)로부터]

(5) 정의 4는 참이다.[잠정적 가정]

(6) 그러므로 (a)는 본래적으로 중립적인 사태들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지 않다.[(2), (3), (4), (5)로부터]

(7) (a)는 본래적으로 중립적인 사태들보다 본래적으로 더 좋다.[가정]

(8) 그러므로 정의 4는 거짓이다.[(5), (6), (7)로부터]

일견 이 논변은 건전해 보인다. 모든 추론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전제 (1)과 (7) 역시 참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6)은 전제 (2), (3), (4), (5)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8)은 전제 (5), (6), (7)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7)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1)이 참이고, (2)와 (4)가 (1)로부터 실제로 도출되고 (3) 또한 (2)로부터 도출된다면 이 논변은 실제로

17) *Ibid.*, pp.52-53. 필자가 '정의 4'를 '정의 1'로 바꾸었다.

전전할 것이다. 우선 (2)가 과연 (1)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3)이 (2)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반영한다’는 용어가 치솜의 의미로 이해된다면, (2)는 분명히 (1)로부터 도출 가능하다.¹⁸⁾ 그리고 (3) 역시 (2)와 정의 2(혹은 정의 2’), 정의 3으로부터 도출된다. 왜냐하면 (2)가 참이라면, (a)는 정의 2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유적으로 중립적인 뜻으로 정의 2의 두 번째 조건 역시 만족시키기 때문이다.¹⁹⁾ 실제로 세계 W_a 는 (a)가 본래적 가치 담지자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제 (1)의 진리 여부는 어떤가? 그리고 전제 (4)는 (1)로부터 도출 가능한가? 언뜻 보아 (1)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어 보이고, 또 (4)도 전제 (1)로부터 도출 가능한 것 같아 보여 결과적으로 이 논변은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로부터 (4)로의 추론에 대해 좀더 주의 깊게 고찰해보면 (1)과 (4) 사이의 비일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1)이 참이라고 주어지면, (4)는 (1)로부터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 (4)가 참이라고 주어지면, (1)은 거짓이다. 특히 세계 W_a 를 고립화 가능 세계의 적법한 사례로 가정한다면, 그런 세계 W_a 는 유적으로 중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만일 W_a 가 유적으로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그런 세계 W_a 는 치솜이 고립화 방법을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고립화 가능 세계의 사례라고 할 수 없다.

(4)가 참이라고 간주되는 이유는 (c)가 (a)의 긍정적 가치를 상쇄하는 독자적인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세계 W_a 가 치솜이 구성하고자 했던 적법한 고립화 가능 세계라면, 그 세계는 정의들이 부과하는 조건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c)가 본래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c)는 먼저 본래적 가치 상태여

18) 비록 (c)가 본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혹은 W_a 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될지라도, (2)는 여전히 (1)로부터 도출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a)가 W_a 의 전체 유적 가치의 유일한 결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19) 비록 (a)가 유적으로 중립적이 아닐지라도 (즉, (c)가 본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혹은 W_a 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될지라도) (a)는 여전히 정의 2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a)가 W_a 의 전체 유적 가치의 유일한 결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야만 한다. 그러나 정의 2(혹은 정의 2')에 의하면 (c)는 가능 세계 W_a 에서 본래적 가치 상태가 아니다. (c)는 세계 W_a 의 모든 좋음과 나쁨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c)는 도구적 가치도 갖지 못한다. 비록 (c)가 가치를 담지할 수 있을지라도 그 가치는 독립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는 본래적 가치도 외래적 가치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전제 (4)가 참이기 위해서는, (c)는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c)의 부정적 가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a)조차도 유적으로 중립적이라고 간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과 (4)는 비일관적이다. 결과적으로 W_a 가 유적으로 중립적 가치를 지니려면, 세계 W_a 는 치솜이 구성하고자 했던 고립화 가능 세계일 수 없다; 만약 세계 W_a 가 정의들이 부과하는 조건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적법한 고립화 가능 세계라면, (4)는 (1)로부터 도출이 불가능하다. (c)는 본래적 가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세계 W_a 는 긍정적인 유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만일 W_a 가 고립화 가능 세계가 아니라면, 고립화 가능 세계가 아닌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치솜의 고립화 방법에 하등의 부정적 영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반례일 수 없다. 치솜이 자신의 초기 정의, 곧 '모든 가능 세계에서 좋음'이라는 정의를 포기한 이유도 바로 고립화 가능 세계가 아닌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데에 있었다. 치솜은 분명히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본래적 좋음—일테면 누군가의 무해한 쾌락—이 그에 뒤따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쁨을 야기하는 그런 세계를 상상해 보라. 우리가 그런 세계의 쾌락적 경험에 대해 과연 유적 의미의 ' 좋음'이란 뜻에서 좋다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렇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좋은 사태를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좋은 사태라고 규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려가 본래적 나쁨에 대해서도 성립한다.²⁰⁾

다른 한편으로, (4)가 만일 (1)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20) R. Chisholm, *op. cit.*, p.122.

논변 전체는 무너지고 만다. 오히려 그들이 반례로 제시한 사례들은 치솜의 정의 4를 지원해주고 있다. 세계 W_a 가 긍정적인 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a)가 긍정적인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 (7)을 쉽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W_a 와 같은 인과적 반례들은 진정한 반례일 수 없다. 세계 W_a 를 고립화 가능 세계의 사이비 사례라고 반박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근거는 두 가지이다. (i) W_a 는 치솜이 구성하고자 했던 진정한 고립화 가능 세계가 아니다. (ii) W_a 는 긍정적인 유적 가치를 가진다. 이 가운데 (ii)는 직관에 배치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i)을 반박 근거로 삼는 것이 보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세계 W_a 가 고립화 방법을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고립화 가능 세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앞서의 인과적 반례들이 사이비 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